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2편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 힘 보여준 ‘촛불대선’, 노동 존중받는 국가 만들겠다”

서연희 기자간담회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신문은 지난달 20일 송실대에서 26개 대학신문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와 함께 대선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만나 뵈었다. 심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를 강조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방안과 함께 경제분야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도 제안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로 인한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모든 정부는 친 재벌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가 개척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노량진 학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위해 길게 줄 서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국가차원에서 실업률을 12.8% 정도로 파악하지만 실질적 실업률은 20% 정도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청년고용 대책과 관련해 ‘고용의 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긴급조치는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실업부조 ▲청년기본소득 이상 세 가지다. 먼저 ‘청년고용특별법’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현재 수준에서 5%의 청년 추가고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24만 5천 개의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청년실업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 간 지급해서 청년 구직을 촉진시키는 급여다. 마지막 ‘청년기본소득’은 일종의 ‘사회 상속’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받아들이는 돈은 5조 6천억 원 정도이며, 이를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할 경우 1인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Q. 청년취업을 위한 긴급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인가?

필요한 60조 원의 증세방안은 이미 제시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했던 세목들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개혁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걷자는 것이 핵심이다. 증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걷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Q.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묻지마’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학의 운영방식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조 자체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 개혁은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대학연계협력 촉진법 ▲공공대학위제와 통합전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운영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 평의원회는 학교, 학생, 교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와의 소통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대학서연희의 해소를 위해선 ‘대학 연계협력 촉진법’을 만들어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학 간 학점 교류, 전학 및 전과 그리



지난 달 20일 송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정현진 기자)

고 공동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공동학위제와 통합전형까지 진행할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준비할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국가나 재계의 개입으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대학의 공공성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Q. 국·공립대를 넘어서 총장직선제를 사립대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립대에는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이사로 참여하지 못 하게 하는 ‘윈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재단 일가가 휘두르는 사립대 비리는 일정 부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대부분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는 현재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에 4조 원을 쓰고 있는데, 3조 4천억 원의 국고를 추가로 투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Q. 심 후보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현실성과 경제적 여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저성장 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시대에 최저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낮았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의 인상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영세업자들에게 전가되면 애초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기업과 원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엄격히 할

후보약력	
학력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병역	해당사항 없음
종교	천주교
경력	17,19,20대 국회의원

예정이다. 이외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 가입비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본인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특히 청년들과 함께 일선에서 불의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다. 앞으로의 국정운영도 청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절실한 요구, 절실한 의지가 바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살아온 길은 그에 가장 부합해 청년들의 개혁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안내

2017 창의적종합설계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최소 2인 이상, 타학과간 구성 가능)

▶신청방법

- 기간: 2017.3.20.(월)~4.20.(목)
- 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icee@kh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abeek.khu.ac.kr)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산업체·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이 제공될 예정(공지사항 참조)

▶지원혜택: 시제품 제작 재료비,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및 우수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시상내용

구분	시상내용	부상
교내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경희대학교 총장상)	상장 및 상금
거점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성균관대 공학교육거점센터장 상)	
전국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후원기관장상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일정

- 제안서심사: 2017.05.10.(수)
- 교내 경진대회: 2017.6월
- 창의적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2017.9~10월 중(교내 입상자 대상)
- 창의적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2017.11월 중(거점대회 입상자 대상)

▶문의

-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행복기숙사 이름을 제안 받습니다

2017년 1학기 행복기숙사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 들어섭니다. 학생 926명을 수용하는 대운동장 행복기숙사는 경희의 또 다른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건물의 이름을 짓는 일에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제안방법

- 대학 홈페이지 하단의 'Links'에서 〈행복기숙사 이름 제안하기〉클릭
- 게시판에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받은 후 형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
- ※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로도 제안 가능

2. 기간: 2017년 4월 3일(월) ~ 4월 16일(일)

3. 주의사항

- 제안하는 이름이 외국어 혹은 한자일 경우 발음과 뜻을 명확하게 기재
- 이름의 의미가 경희의 역사, 철학, 비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 제안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4. 대운동장 행복기숙사의 이름을 제안해주신 분들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5월 8일 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당첨자 게시 예정)

5.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이름의 저작권 및 사용권한은 경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6. 문의: 서울캠퍼스 생활관(02-961-0376)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명칭은 대운동장 행복기숙사의 이름을 선정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캠퍼스 생활관